

청구입원문

清口愿文呈奏

청구원을 노모님께 아뢰습니다.

弟子 ○○○誠惶誠恐，虔心跪在明明上帝蓮下 爲表白立愿事，窃以 弟子自求道以來，道理不明 窃以 弟子 自求道以來，道理不明 寸功未立，

제자○○○는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명명상제 연대아래에서 꿇어 마음의 원을 표명하옵니다. 생각하건대 제자는 구도한 이래로 도리에 밝지 못하고 조그마한 공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承蒙 皇母天恩 祖師乘慈 皇모님의 은혜를 입어 조사님께서 자비하시어 師尊師母 二位老大人，浩德隆恩 得列門下，玄祖同沾，此恩此德， 殺身難報 萬一，再三思惟，有愧天良，今又蒙，道長，前人，苦口成全，今情願在

사존사모 이위노대인의 크나큰 덕과 은혜로 문하에 들어와 위로 조상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와 덕으로 이 몸이 죽어서 만에 하나라도 갚기 어렵습니다. 두 번 세 번 생각하건대 하늘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어 이제 또 은혜를 입어 도장 전인의 입이 닳도록 성전하여서 지금 마음 먹은 원이 있습니다.

皇母蓮下 母親老大人，駕前 出於五中 發心立愿 並願徒此，清口茹素 戒除烟酒賭博，及不良的 嗜好 痛改前非，另作新民 上慈下孝，立愿了愿。 儻如，口心是非，陽奉陰違，

황모연하 모친노대인 앞에서 내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원을 세워 아울러 이로 좇아 동시에 원하나니 청구 여소, 담배, 술, 도박 및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것, 앞서의 일은 애통히 고치고 새사람이 되겠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랫사람은 웃어른께 효도하고 만약에 마음으로는 그르다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옳다고 하며 외양내심이 다르게 하여

不照此愿 實行者 願受，天打五雷轟身

이와같이 하면 노모님으로부터 천벌을 받겠습니다.

九玄七組，同墜深淵，靈光擊散 萬劫不復

위로 칠대 조상과 아래로 구대의 자손도 지옥에 떨어지고 신령스러운 빛도 흩어지고 만겁을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도다.

제자 엎드려 백고를 올립니다.

天運년 歲次 년 월 일 시 맹세합니다.

愿文呈奏

원문을 노모님께 아뢰습니다.

弟子 ○○○誠惶誠恐 虔心跪在

明明上帝蓮下 爲表明心愿事 窃以 弟子 自求道以來 道理不明 寸功未立 承蒙

제자○○○는 두렵고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명명상제 연대아래에 꿇어 마음의 원을 표명하옵니다. 이 제자는 구도하여 지금에 이르렀음에도 도리에 어둡고 밝지 못하여 조그마한 공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皇天開恩 祖師慈憫 諸天神聖護佑 師尊師母二位老大人 護德隆恩 得列門下 指我本來 求我出苦 玄祖同沾 此恩此德 殺身難報萬一 今又蒙

母親老大人 大慈大悲 道長前人 苦口成全 多夢不棄 卑以

황천의 큰 은혜를 받사옵고 모든 하늘 신성님들의 보호하심과 사존사모 이위노대인의 넓고 두터운 덕을 입어서 성문에 들어 본래면목(본성자리)을 지점받아 구원을 얻었고 조상께서 자손까지 같이 고해에서 뛰어났으니 이 은덕은 저의 몸을 죽여서 갚아도 다 갚기 어렵사옵니다. 이제 다시 모친노대인의 대자대비와 도장 전인께서 입이 닳도록 성전시켜 주심을 만일 가벼이 저버린다면 어찌 그 허물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法壇 ○○壇主乃因后天 有職 先天有○ 再三思維

有愧天良 恐惶萬分然有明不可違 無命不可強

법단 단주는 후천의 직분이고 이로 원인하여 선천의 과보가 있는 바 재삼 생각하건대 양심에 부끄럽고 황송스럽기 이룰데 없습니다.(지금까지의 수도를 생각하니 부끄럽다는 뜻)

並願從此振作精神埋頭苦幹 一心一德 宏展一方道務 和衷共濟 負起責任 今情願在 皇母蓮下母親老大人 駕前 堅決志向表明立愿清口茹素 頂劫救世 尊師中道 開荒下種 渡人上岸 財法雙施

아울러 이제부터 정신을 가다듬어 쉬지 않고 열심히 힘쓰고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도를 널리 퍼는데 충심으로 저도 남과 함께 삼천대사의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뜻을

노모님 연대하에 성모노대인전에 굳은 결심으로 “원”을 세움을 표명하옵니다. 청구 소식 할 것이며 눈 앞에 다다른 겁살에서 세상을 구하며 스승

을 존경하고 도를 귀중히 받들며 개항하여 씨를 뿌리고 원인(원불자)을 제도하여 피안에 오르게 할 것이며 재시와 범시를 짓겠습니다.

儻如 口是心非 陽奉陰爲 不照此愿 實行者 願受 天打五雷轟身

만약 이와 같은 서원을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으로는 다르게 한다거나 남이 보는 데서는 받들어 행하고 안보는 데서는 어기어 이 원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다섯 가지 징벌이 이 몸을 부수고 구대자손 칠대 조상이 같이 지옥에 떨어져 잔영으로 화하여 만겁(아주 오랜 세월)을 회복치 못하더라도 이를 달게 받겠습니다. 제자는 엎드려 고두례를 드립니다.

九玄七組, 同墜深淵, 靈光擊散, 萬劫不復

위로는 칠대조상 아래로는 구대의 현손까지도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신령스러운 영의 빛(영혼)은 잔영으로 흩어져서 만겁을 지나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뢰란? 金雷 --- 칼에 찔려 죽는 것.

木雷 --- 몽둥이에 맞아 죽는 것.

水雷 --- 물에 빠져 죽는 것.

火雷 --- 불에 타 죽는 것.

土雷 --- 토담에 치여 죽는 것.

중국속담에 천벌을 받는 사람은 벼락이나 다섯가지 번개를 맞아 죽는다고 한다.

사신입원문

捨身願文

사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自求道以來 堪稱亘古罕聞

제가 구도한 이래로 감히 듣기드문 천도이며

三生大幸 六萬年之奇緣

삼생에 다행스럽게도 육만년동안의 기이한 인연으로써

以無價秘寶獻 我們庭安坐

값을 논할 수 없는 비밀스런 보배를 우리들 뜰에 편안하게 보내주어서

拜受玄祖同沾 再三思維

구현칠조까지도 절을 받으며 똑같이 은전을 입어서 재삼 생각하건데

無一報恩今甘願爲

그 큰 은혜에 만에 하나도 갚음이 없는데 오늘 좋은 원을 올리게 되었으니

爲道獻身 進入佛門

도에 몸을 바쳐서 불문에 들어가면

遵守佛規 尊師重道

불규를 준수하고 스승을 높이고 도를 증하게 여긴다.

聽命調遣

명을 들으면 그 일에 잘 따라서

終身犧牲 以作人師

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희생하여서 이로써 남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任勞任怨

수고롭게 책임을 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言行相顧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항상 돌아보고

濟度衆生 以報萬一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는 일로써

倘如半途變節

항상 변하지 않게 하여서

步入左道旁門

좌도방문 길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背師求榮

스승을 등지고 영화로운 것을 구하지 않고

別立門戶 開齋破戒 發生醜聞

별도로 다른 문호(종파)를 만들지 않고 계율을 파계하지 않을 것이며 추한 말이 나도록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藉道生財

도를 빙자하여서 재물을 취하여 삶을 추구하지 말며

爭權霸勢

권력을 다투어서 세력을 퍼지 말 것이며

及病死逃亡等情違犯佛規

병사(病死=천도를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죄)에 어려움에서 도망가게 되면 불규를 어기는 것이 된다

汚染道體實屬罪魁依會規除名

그래도 도의 체가 오염되어 실로 그 죄에 따라 회규에 의거 제명을 시키게 되며

天命回收 不准無禮

천명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예의에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要求給月薪等情以上吾道

월급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도에서는

概不負責

책임지지 않는다.

有保證人

사신보증인에 있어서도

擔負完全責任退愿還俗

책임을 지게하고 환속하여도 상관하지 않는다.

各不相干

각자 상관없이

恐口無憑立此書爲證

입으로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 서류로서 증거가 되게 한다.

이 책의 저작권은 (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